



12월 이후 밤 가격 평년대비 강세 전망

밤

2012년
12월호

※ 식재 보식위주, 품종은 대보, 단택 선호

- 주산지의 내년도 밤나무 식재는 태풍피해목에 대한 보식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식재의향 품종은 지역적 차이는 있으나, 대보, 단택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밤 유통 농협 비중 증가, 직거래 감소

- 금년도 밤 유통은 지역적 차이는 있으나 생산량 감소 및 농협의 경제사업 확대로 농협 거래비중이 증가한 반면, 소비자 직거래 비중은 작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밤 산지가격 평년대비 강세 지속될 듯

- 11월 중순 이후 밤 산지가격은 본격적인 소비시즌의 도래로 수요요인은 있으나 산지의 생산량 및 출하량 감소, 저장 밤의 유통 등 공급요인의 변화로 인해 평년대비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밤 수출은 평년대비 감소, 수입은 증가 전망

- 밤 수출은 일본의 재고소진, 수출선의 다변화 등 수출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가격 상승으로 평년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수입은 평년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 주산지별 밤 평년대비 추정 생산량

단위 : %

구 분	전 체	충청도	경상남도	전라도
증감률	-27.3	-25.1	-16.8	-47.4

자료: 주산지 표본임가 및 통신원조사치(10월 29일~11월 2일)

■ 주산지별 밤 유통 비중

단위 : %

	농협	산림조합	중간상인	수출업체	직거래	영농법인	기타
전 체	52.5	3.3	16.3	-	16.2	8.2	3.4
충청도	23.4	5.2	26.0	-	24.7	18.2	2.6
경상남도	89.6	3.0	3.0	-	4.5	-	-
전라도	56.7	-	16.7	-	16.7	-	10.0

자료: 주산지 표본임가 및 통신원조사치(9월 26일~10월 4일)

■ 주산지별 내년도 밤나무 식재 의향

단위 : %

구 분	충청도	경상남도	전라도
신규	16.4	8.0	3.6
갱신	18.4	20.0	19.3
보식	65.1	72.0	77.1

자료: 주산지 표본임가 및 통신원조사치(10월 29일~11월 2일)

■ 주산지별 식재선호 품종

단위 :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충청도	대보	단택	대한	옥광	석추
경상남도	단택	대한	대보	은기	축파
전라도	옥광	대보	단택	이평	유마

자료: 주산지 표본임가 및 통신원조사치(10월 29일~11월 2일)

산지동향 및 전망

금년산 밤생산량 평년대비 25% 이상 감소한 듯

- 금년 밤 생산량은 평년대비 2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밤 과실비대기에 가뭃과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크기가 작고 선택, 당도 등도 좋지 않아 품질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저장물량 작년대비 감소한 듯

- 산지 저장물량은 금년도 밤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산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저장물량이 많지 않았던 작년보다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장물량중 농가보유량은 많지 않으며, 산지수집상 및 유통인들의 저장물량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유통상황에 따라 출하량 및 저장물량이 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유통비중 작년보다 증가

- 금년도 밤 산지유통은 전체적으로 농협 52.5%, 산림조합 3.3%, 중간수집상 16.3%, 직거래 16.2%, 영농조합이 8.2%로서 농협 및 중간상인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협의 경제사업 확대로 농협 유통비중은 작년 46.8%에서 52.5%로 증가한 반면, 직거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밤나무 식재 보식위주로 진행될 듯

- 주산지의 내년도 밤나무 식재의향은 지역적인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식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금년 태풍으로 피해를 본 밤나무가 많아 피해목에 대한 보식면적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식재품종은 대보, 단택 등 선호

- 내년도 식재선호 품종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품질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보와 단택은 지역적 선호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품종으로 나타났다.

가격동향 및 전망

11월 상순 밤 가격 평년대비 강세 지속

- 10월 밤 상품 평균 산지가격은 kg당 3,534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15%, 평년 동기대비 88% 높았으며, 11월 상순에도 3,805원으로 작년대비 1%, 평년대비 91% 높은 강세가 지속되었다.
- 10월 밤 상품 평균 소비지가격은 kg당 7,040원으로 작년대비 23%, 평년대비 38% 높았으며, 11월 상순에도 7,380원으로 작년대비 23%, 평년대비 41% 높은 강세를 나타냈다.

밤 산지가격 평년대비 강세 전망

- 밤 가격은 10월 상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11월 중·하순 이후에는 밤 소비계절이 도래하고 밤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공급물량 부족, 저장 밤의 유통 등 가격상승 요인이 잠재해 있어 평년보다 높은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입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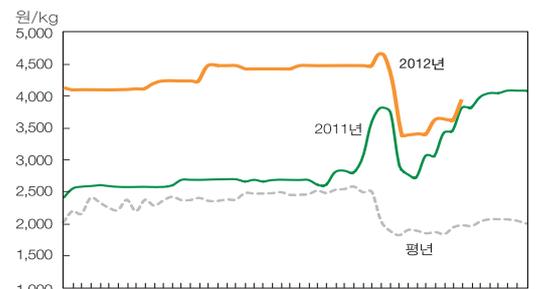
밤 수출 평년대비 감소 전망

- 9월까지 밤 수출량은 4,456톤, 금액으로는 1,376만 달러로서 수출량은 평년동기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생밤 3,917톤, 간밤 231톤, 냉동밤 23톤, 조제밤 285톤이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11월 중순 이후 밤 수출은 일본의 재고소진, 수출선의 다변화 등 수출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년산 밤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산지가격 상승으로 평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밤 수입 평년대비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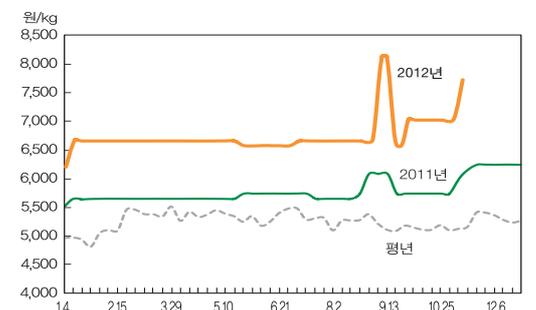
- 9월까지 밤 수입량은 5,256톤, 금액으로는 1,386만 달러로서 수입량은 평년대비 15%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생밤 1,341톤, 냉동밤 2,860톤, 조제밤 1,055톤이 수입되었다.
- 11월 중순 이후 밤 수입은 중국의 생산여건에 영향을 받겠지만 국내산 밤의 가격상승으로 수입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평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별 밤 산지가격 (상품기준)



주: 평년가격은 '07년 1월~'11년 12월까지의 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주별 밤 소비지가격 (상품기준)



주: 평년가격은 '07년 1월~'11년 12월까지의 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밤 수출 동향

단위: 톤

구 분	1~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월	
'12	생 밤	45	1	2	3,869	(5,824)		3,917	
	간 밤	0	0	0	231	(246)		231	
	조제밤	175	18	33	59	(25)		285	
'11	생 밤	52	3	32	2,740	5,887	583	127	2,827
	간 밤	1	0	0	201	503	61	0	202
	조제밤	191	26	33	13	59	92	76	263
평	생 밤	81	2	36	4,477	5,013	816	228	4,596
	간 밤	1	0	0	304	502	153	5	305
년	조제밤	246	36	49	48	61	60	72	379

밤 수입 동향

단위: 톤

구 분	1~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월	
'12	생 밤	1,029	145	40	127	(272)		1,341	
	냉동밤	2,354	204	105	197	(286)		2,860	
	조제밤	702	147	115	91	(149)		1,055	
'11	생 밤	887	43	103	166	262	272	321	1,199
	냉동밤	1,555	185	115	297	86	236	465	2,152
	조제밤	942	80	109	123	86	109	102	1,255
평	생 밤	802	67	43	86	184	154	163	999
	냉동밤	1,478	222	155	209	281	321	316	2,064
년	조제밤	1,096	199	120	109	127	125	111	1,524

주: 10월은 잠정 추계치로 합계에서 제외, 2007년 1월~2011년 12월까지의 월별 값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이며,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였음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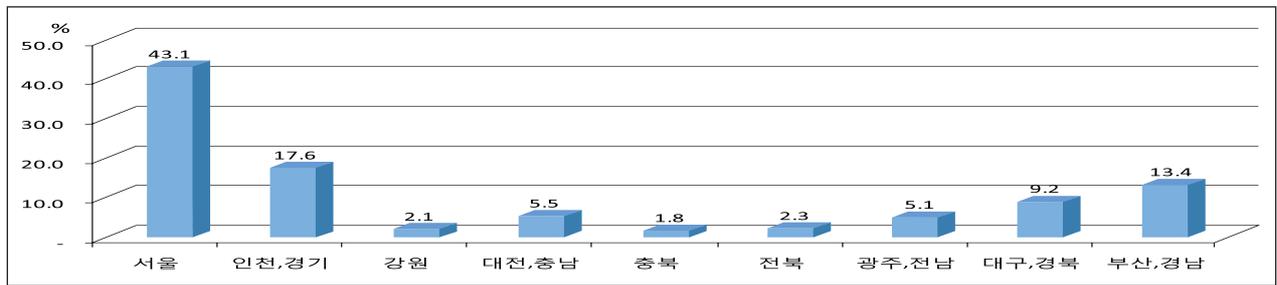
밤 소비자 조사 결과

I. 조사개요

- 조사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패널 568명
- 조사기간: 2012. 10. 30~31
- 조사대상의 평균 특성:

구 분		비율(%)	구 분		비율(%)
가족수	4명	50.5	학 력	대 졸	47.7
연 령	40대	45.6	월 소득	300~400백만원	29.8

- 표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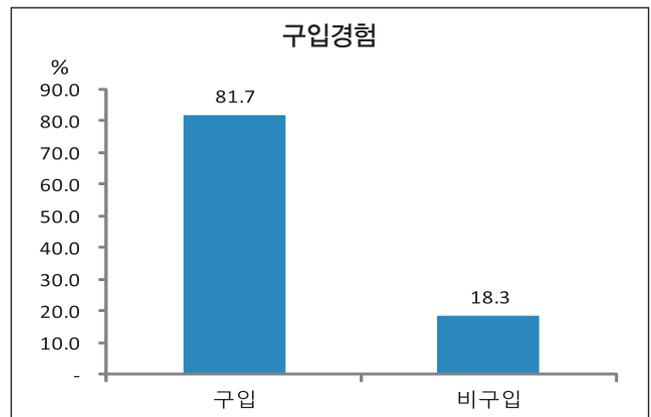


II. 조사결과

■ 밤 구매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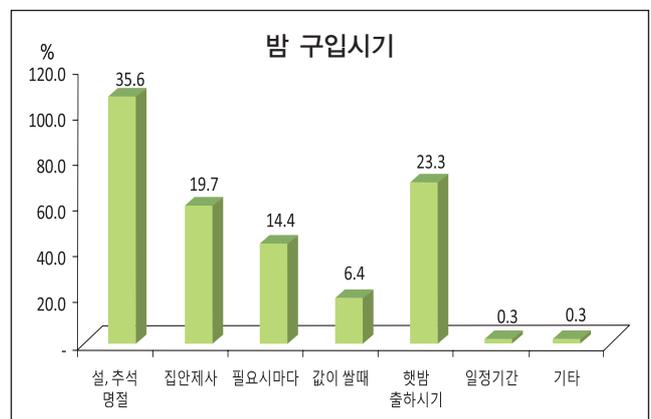
- 구매 경험

- 최근 1년간 밤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 응답가구의 81.7%인 464명이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구입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밤을 구입하지 않았던 이유로는 '가족이나 친지에게서 얻어 와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입 시기 및 장소

- 최근 1년간 주로 밤을 구입한 시기는 '설, 추석 등 명절'이라고 답한 가구가 전체가구의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햇밤 출하 시기가 23.3%로 다음 순위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주로 밤을 구입한 장소는 '재래시장'이라고 답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형할인점'이 33.1%로 나타나 일반 농산물에 비해 재래시장 구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신

○ 구입시 선호형태

- 밤 구입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신선도와 외형, 가격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선하고 품질 좋은 밤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1회 평균 밤 구입량은 '500g~1kg'이 51.3%로 소량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간 밤을 얼마나 자주 구입하였느냐는 질문에 '분기에 1회'가 60.3%로 나타나 구입 횟수는 잦지 않음.
- 선호하는 포장형태는 '무게를 달아서 파는 형태'가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망, 비닐 등 소포장 형태'도 45.1%로 나타남.
- 선호하는 크기로는 '대(1개당 무게 16g 이상, 직경 33~37mm)'가 가장 선호되고 있으며,
- 구입시 선호되는 지역밤은 '충남지역 밤'이며 27.2%는 지역에 대해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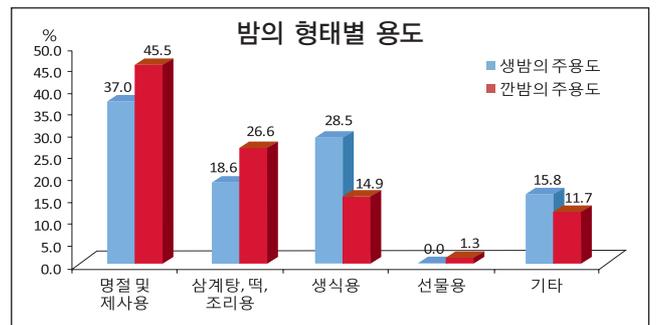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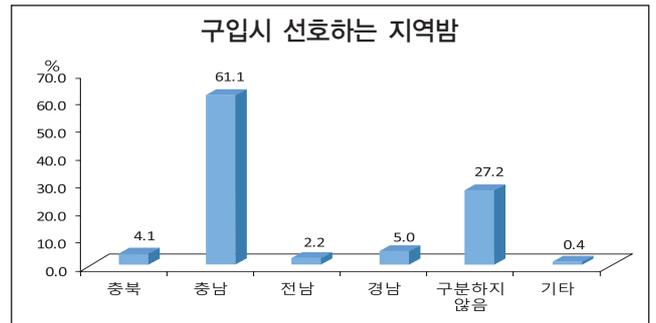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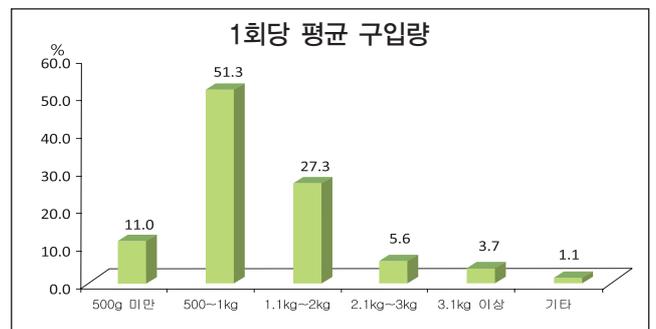
■ 밤 소비형태

○ 소비용도

- 구입밤의 형태는 '생밤'이 90.3%로 가장 많고 간밤이 8.2% 차지하며, 생밤의 주 용도는 명절 및 제사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식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28.5%, 조리용으로 18.6%로 나타남.
- 밤의 영양학적 기능성 중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기능성은 '탄수화물, 단백질, 기타지방, 칼슘 등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발육 및 성장에 좋다'로 40.7%를 차지하였으며 기능성에 대해 '알지 못함'은 11.7%로 나타나 밤의 기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 밤의 최근 1년간 밤 소비량이 증가한 이유로는 '맛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맛과 품질에 따라 소비량이 달라지고 있으며, 농가단위에서의 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밤 구입시 우선 고려사항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합 계
브랜딩	2.9	5.6	4.9	8.6	14.2	24.0	22.7	17.1	100.0
신선도	35.4	20.6	16.2	13.9	10.6	2.2	0.9	0.2	100.0
포장형태	0.7	3.7	5.9	8.4	17.8	19.2	19.0	25.3	100.0
외형	20.1	29.6	18.8	14.6	7.7	4.2	2.9	2.0	100.0
생산지역	10.7	14.3	9.3	10.0	14.5	15.4	15.0	10.7	100.0
가격	8.3	13.4	23.2	21.2	12.5	9.4	7.8	4.2	100.0
원산지	24.8	14.5	20.1	18.3	9.6	6.7	4.9	0.9	100.0
품질	0.7	2.4	5.0	4.5	13.7	20.5	26.9	26.4	100.0



■ 밤의 기능성 및 소비(구매)증가원인

밤의 영양학적 기능성	비율(%)	증가 이유	비율(%)
인체발육 및 성장에 도움	40.7	가족건강을 위해서	39.4
피부미용, 피로회복 감기예방	33.9	맛이 좋아서	51.1
다이어트 식품	12.8	가격이 싸서	1.1
알지못함	11.7	기타	8.5
기타	0.9		
합 계	100.0	합 계	100.0

◎ 요약

- 날씨의 변화가 잦은 가운데 기온의 변동 폭이 크겠음.

◎ 기압계 전망

- 11월 하순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날씨의 변화가 잦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12월 상순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12월 중순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하겠으며, 추운 날씨가 자주 나타나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순별 예보

- 11월 하순: 기온은 평년(2~10℃)과 비슷하겠으며, 강수량도 평년(9~23mm)과 비슷하겠음.
- 12월 상순: 기온은 평년(-1~7℃)과 비슷하겠으며, 강수량도 평년(7~19mm)과 비슷하겠음.
- 12월 중순: 기온은 평년(-3~5℃)보다 낮겠으며, 강수량도 평년(4~11mm)보다 적겠음.

■ 순별 평균기온 및 강수량¹⁾

구 분		전 국	서 울	강 릉	청 주	대 구	전 주	광 주	부 산	제 주
11월 하순	최고기온	11.1	8.9	11.5	10.1	12.1	11.4	12.3	14.2	14.1
	최저기온	0.3	0.8	3.2	-0.5	1.9	1.2	2.3	5.7	8.0
	강 수 량	15.4	14.1	21.7	14.8	9.4	17.8	17.5	17.9	22.4
12월 상순	최고기온	8.7	6.1	9.6	7.4	9.8	8.9	9.8	12.1	12.4
	최저기온	-1.9	-1.6	1.1	-2.9	-0.3	-0.8	0.4	3.5	6.3
	강 수 량	11.4	9.4	14.3	12.7	7.1	15.6	15.5	9.5	17.5
12월 중순	최고기온	6.6	3.9	7.5	5.2	7.8	6.8	7.6	10.0	10.6
	최저기온	-3.3	-3.3	-0.7	-4.3	-1.6	-2.2	-1.1	1.7	5.2
	강 수 량	6.1	5.6	8.1	5.1	3.6	7.4	8.7	7.9	17.0

주: 1) 1981~2000년의 평균치임.

임업관측(밤) 4월호 예고 (예정일자: 2013. 3. 15)

- 품 목 : 밤
- 내 용 : 산지동향, 가격 동향 및 전망, 수출입동향

이 『임업관측월보』는 인터넷과 임업전문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업관측월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우측 【바로가기】 메뉴바의 【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rei.re.kr> ☎ 02) 3299-4325 FAX: 02) 960-0165
<http://www.forest.go.kr> ☎ 042) 481-4206 FAX: 042)481-4198

담당자: 장철수, 송성환

이 「임업관측(밤)」은 산림청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부에서 재배자들의 재배의향, 작황, 가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임업 및 통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 전망 결과는 앞으로 기상 및 수급여건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